

용재오닐 “베토벤 음악은 유효기간 없죠”

‘앙상블 디토’ 7월3일까지 예술의 전당 등 7번 공연

“위대한 음악가의 음악은 유효기간이 없다. 500년 전 연주하거나 어제 연주하거나 마차가지다.”

비올라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38)은 13일 오전 서울 문화공간 언더스탠드 에비뉴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주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베토벤 음악을 들어도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베토벤의 음악은 쉽게 작곡한 작품이 아니다. 베토벤의 음악은 세상을 비춘 음악이자 연주자가 느끼기에는 세상의 무게가 담긴 작품이다.”

용재 오닐이 주축인 ‘앙상블 디토’가 이끄는 ‘2016 디토 페스티벌’은 ‘베토벤’을 주제로 7월3일까지 예술의전당·LG아트센터에서 총 7개의 공연을 선보인다. 공연 타이틀은 ‘베토벤:한계를 넘어선 자’다.

용재 오닐은 “베토벤은 청각을 잃은 상황에서 굳은 결심으로 작곡에 임했다. 초기 곡들은 내 또래에 쓰여진 작품”이라며 “중기 곡들은 청력을 잃은 뒤 연주로서 연주를 하지 못한 채 만들어진 곡들. 마지막으로 후기 곡들은 청력을 완전히 잃은 뒤 글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쓴 작품이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작품들”이라고 경이감을 보였다. 그는 에세이 ‘나와 당신의 베토벤’ (오프하우스)을 펴내기도 했다.

용재 오닐은 현악사중주단 에네스 콘서트(바이올리니스트 제임스 에네스바이올



13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숲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열린 '2016 디토편제스티벌, 베토벤 한계를 넘어선 자' 기자회견회에서 리처드 용재 오닐(사진 왼쪽)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리니스트 에이미 슈워츠 로페티·첼리스트 로버트 드메인)과 함께 이번 페스티벌 공연의 하나로 베토벤 현악사중주 전곡을 연주한다.

25~26일, 7월1일·3일 총 4일 간 6번의 무대로 전곡 사이클을 돈다. 한 단체가 보통 1~2년에 걸쳐 연주하는 사이클을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연주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다.

올해로 8번째 시즌을 맞는 ‘디토 페스티벌’에서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점은 젊은 아티스트 발굴이다. 이번에도 2014년 파블로 카잘스 첼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첼리스트 문태국, 지난해 역시 한국인 처음으로 ‘부소니 국제 콩쿠르’에서 1위에 오른 피아니스트 문지영이 이

축제를 통해 첫 듀오 리사이틀(15일 오후 LG아트센터)을 선보인다.

최근 ‘윈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4위로 입상한 피아니스트 한지호는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의 리사이틀(17일 오후 LG아트센터) 무대에 힘을 실는다.

이와 함께 디토가 배출한 양광 테리블, 한경(오보에), 김한(클라리넷), 조성현(플루트)이 결성한 ‘바이츠 콰텟’이 한국 데뷔 무대(16일 오후 LG아트센터)를 치른다.

첼리스트 음악원에서 프레드 세리 교수 등이 자신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기회를 줬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용재 오닐은 “젊은 연주자에게 새로운 기회와 경험을 줘고 싶다”고 말했다. “클래식음악이 나이가 든 분들이 즐긴다는 인식이 있는데, 젊

은 연주자들로 인해 새로운 청중이 온다. 그들에게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여렸을 때 청중으로서 ‘디토 페스티벌’을 접했다는 신지호는 “예전에 클래식 음악이 젊은 청중에게 다가가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디토 페스티벌’을 보면서 이런 좋은 접근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앙상블 디토는 올해 열 번째 시즌을 맞이했다. 최근 앨범 ‘디어 아마데우스’와 ‘슈베르트올로지’를 발매한 이 팀은 지난 가을 기동 크레마 & 크레메라타 발타카와 공연으로 국내·해외 무대 100회 공연을 돌파했다. 이번 축제에서는 ‘혁명가들’(28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이라는 테마로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시즌은 디토의 한 시기를 마감하며 ‘앙상블 디토 2기’를 준비하는 해다. 시즌 2부터 디토의 멤버였던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피 재키브와 시즌 3부터 함께한 첼리스트 마이클 니콜라스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팀을 떠난다.

재키브는 “용재 오닐과 9년째 해온 일이 자랑스럽다. 실내악 음악에 새로운 관점을 끌어들이는 것이 목표였는데 어느 정도 달성한 것 같다”며 “그간 삶과 다른 무엇을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니콜라스, 역시 앙상블 디토 멤버였던 피아니스트 지용과 함께 트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이번 페스티벌은 비엔나 체임버 오케스트라 & 임동혁, 앙상블 디토(18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도 마련된다. 크레디타 클럽발코니. 1577-5266

/이성주 기자

군산예술의전당, 18일 버스킹 공연

군산예술의전당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예술의전당 야외광장에서 버스킹 공연을 진행한다.

이번 공연은 개관 3주년을 맞이한 예술의전당이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깝고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마련됐다. 누구나 찾아와 공연문화를 즐길 수 있는 버스킹 공연은 ‘길거리에서 공연하다’라는 의미의 버스킹(busk)에서 유래된 용어로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공연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첫 공연으로는 오는 18일 저녁 7시 ‘서커스 리썸’ 팀의 서커스가 펼쳐진다.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서커스 공연은 공자극림, 칼저글림, 매직풍선 퍼포먼스 등 다양한 소품을 활용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25일에는 각종 댄스경연대회를 석권한 실력과 B-boy 댄스 팀 ‘소울헌터즈’의 힙과 생동감 넘치는 무대가 펼쳐지며, 다음달 23일에는 맑고 청아한 소리의 ‘오카리나연주단 오카빌레’의 아름다운 하모니 선율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예술의전당은 끼와 에너지가 발산될 버스킹 공연을 통해 관객과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참여형 공연문화의 장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으로, 오는 10월까지 총 8개 팀의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이외조각집과 음악분수가 함께하는 예술의전당 야외광장에서 가족 연인과 함께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장르의 버스킹 공연을 통해 한여름 밤의 도심 속 탈출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군산=문정근 기자

국립국어원, 우리말 뜻풀이 공모

국립국어원은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말 사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10가지 제시어 중 5개 이상을 자기만의 개성으로 뜻풀이해 오는 8월1~15일 접수하면 된다.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제시어는 ‘한글·멋·꿈·미래·샘·함께·신나다·해맑다·정겹다·만들다’이다. 뜻풀이가 연상되는 사진이나 영상을 첨부할 수 있다.

심사는 시인, 기자, 국어문화 전문가, 국어 교사 등이 한다.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4명, 장려상 8명, 단체상 3명 등 18명을 선정한다. 시상식은 10월5일 ‘우리말샘’ 개통 행사와 함께 열린다. 이날 대상 수상자는 자신이 뜻풀이한 낱말을 직접 입력해 ‘우리말샘’ 최초 어휘 등록자로 기록된다. 수상자 전시회도 연다. /이성주 기자

‘전북무용제’ 16일 정읍서 개막

전북무용인들의 창작무용 향연인 ‘제25회 전북무용제’가 정읍시 예술회관에서 펼쳐진다.

16일 오후 7시 개막식 축하무대는 서울 발레시어터의 ‘Tango for Ballet’와 류 무용단의 ‘상상’, 발레리노 이원국의 공연 ‘차이프로스키 파드르’로 꾸며진다.

본 행사인 전국무용제 전북예선은 7일 오후 5시로 이해원무용단 아움, 발레리나즈, 홍지연무용단, Alive Art Project, Dance troupe H M 등 총 5개의 무용단이 참가한다. 이해원무용단 아움은 ‘숨 쉬는 기억-손’이라는 공연을 선보인다.

손의 의미에 관심을 두는 이 작품은 사랑간의 사랑 행위는 결국 ‘손’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간주한다. 무용단은 움직임은 언어인 춤으로 한국무용의 호흡과 춤사위를 조화롭게 표현한다.

발레리나즈의 ‘Un Bal(무도회)’는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 중 2악장을 삽입했다. 흥겨운 무도회의 한 장면을 연출하는 작품은 발레의 기본 동작에 충실하면서 음악이 주는 느낌 그대로 무대에 그림을 그리듯 풀어낸다.

홍지연무용단의 ‘만정도화(滿庭桃花)’, 지거다 는 조국에서 조차 외면당한 채 온전



히 발붙이지 못하고 40년 인고의 세월을 견뎌온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바람을 춤에 실었다. 공연관람은 선착순 무료이며 공연문의는 010-3563-1775 로 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민속국악원 ‘민속악축제’ 펼친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제2회 대한민국 민속악축제가 6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국악원 예일당과 예음에서 열리고 있다.

이는 민속공연예술의 보존 및 전승과 발전을 위해 나아가는 국립민속국악원이 각계 문화예술인들과 적극적인 교류와 민속공연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축제로 <창, 그 깊이에 스미다>, <속, 그 깊이에 빠지다>, <아, 그 깊이에 노닐다>, <무, 그 깊이에 취하다>의 부제를 정하고 다채로운 공연을 펼친다.

<창, 그 깊이에 스미다>, <속, 그 깊이에 빠지다>의 지난 공연에 이어 오는 18일에는 민속 기악 독주곡의 백미로 칭송되는 산조 중, 대금산조와 아쟁산조 명인의 무대(아, 그 깊이에 노닐다)가 마련된다.

이번 무대에는 원정현류 대금산조 창시자인 원정현 명인이 ‘대금산조’를,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0호 박종선류 아쟁산조 보유자인 박종선 명인이 ‘아쟁산조’의 선율을 들려준다.

25일에는 우리전통 민속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무대(무, 그 깊이에 취하다)가



이여진다.

한국창작무용의 선구자로 불리는 김매자(사, 창작예술인 이사장)명무는 ‘숨, 산조’와 ‘삶’을 문정권(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52호 보유자)명무는 ‘전라삼현승무’와 ‘월하명무’의 춤사위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전석 무료이며 문의 및 예약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namwon.gugak.go.kr)과 전화(063-620-2328)로 가능하다. /정해은 기자

문체부, 7월부터 ‘전국 도서관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7월부터 ‘2016년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는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병영도서관 및 교도소도서관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국가 차원의 평가다. 교육부와 국방부, 법무부의 협조로 추진된다.

올해 평가 대상 기관은 2015년 한 해 운영 실적이 있는 공공도서관 930곳, 학교도서관 1만1405곳 등 총 1만14668곳이다.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면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문체부장관상 등의 포상과 함께 우수도서관 인증마크 현판 등을 받게 된다.

공공도서관 등 5종류의 도서관 평가에는 도서관 경영과 인적 자원, 시설 환경, 정보 자원, 도서관 서비스 등 5개 영역 총 90개의 지표가 적용된다. 또 올해 평가에는 지난해 개발된 평가지표를 토대로 변경된 일부 지표가 적용된다.

지난달 말 구성된 ‘2016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위원회’는 봉사 대상 인구 관련 4개 지표에 대해 단년도 실적 중심 평가에서 평가그룹별 실적과 전년 대비 증감실적을 평가하도록 해 소규모 도서관도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선했다.

올해 평가지표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누리집(http://www.di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주 기자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6월 14일>

<p>▷쥐띠 46년생: 문서를 주고 받거나 계약을 하기에 좋은 운. 60년생: 일적으로 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좋은 운. 72년생: 이성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운이니 오해를 사지 않도록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라. 84년생: 자신의 일에 시기 질투를 하는 사람이 생기는 운.</p>	<p>▷소띠 49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떠벌리지 말고 조용히 구하는 것이 좋겠다. 61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 73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다. 85년생: 때를 기다려라.</p>	<p>▷호랑이띠 50년생: 자신과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나타난다. 62년생: 판단오류나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운. 7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86년생: 금전운이 안 좋으니 투자나 투기는 금물이다.</p>	<p>▷토끼띠 51년생: 작은 일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운. 63년생: 원행은 삼가고 타인과의 불화를 미리 예방하라. 75년생: 감기와 같은 기저지 계통의 질병에 주의하라. 87년생: 중요한 일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p>
<p>▷용띠 52년생: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니 힘든 일도 잘 풀린다. 64년생: 나사지 말고 뒤로 물러서서 추이를 지켜봐라. 76년생: 외부적인 일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일이 더 중요함을 잊지마라. 88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손윗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라.</p>	<p>▷뱀띠 53년생: 지금은 상황이 불리하다. 65년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수월하다. 77년생: 경쟁자로 인해 신경 쓸 일이 생기는 운이다. 89년생: 틈기에는 쓴 소리이지만 귀를 기울이면 말 속에 해답이 있을 것이다.</p>	<p>▷말띠 54년생: 때를 기다리며 내실을 다져라. 66년생: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보를 얻어라. 78년생: 사람으로 인해 힘든 일이 발생하니 사람을 골라 상대해야 할 것이다. 90년생: 마음을 비우고 분수에 맞게 행동하라.</p>	<p>▷양띠 55년생: 변화를 가져라. 67년생: 작은 일에 더 신경써라. 79년생: 외부로 확장하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한 운이다. 91년생: 금전관리에 주의하고 중요한 물건은 가지고 다니지 마라.</p>
<p>▷원숭이띠 56년생: 뜻밖의 귀인으로 인해 좋은 결실을 맺는다. 68년생: 지나친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80년생: 대인관계에 신경을 쓰면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운이다. 9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능력을 인정받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운이다.</p>	<p>▷닭띠 57년생: 금전거래는 삼가라. 69년생: 이성이나 친구 사이에 삼각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81년생: 순간의 감정으로 움직이면 후회할 일이 생기니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라. 93년생: 원행은 삼가고 일찍 귀가하는 것이 ভাল 없었다.</p>	<p>▷개띠 46년생: 작은 일에 대해서는 좋은 결실이 있다. 58년생: 사람들과의 모임도 길하고 금전운도 좋은 운. 70년생: 외부적으로 구설, 시비, 실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82년생: 처음에 손해를 보면 후에 얻게 되니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p>	<p>▷돼지띠 47년생: 사소한 일에도 감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운. 59년생: 과음, 과식은 삼가라. 71년생: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운이다. 83년생: 급하게 결정을 내리면 불리하니 차분하게 생각하라.</p>